

다니엘서 - 제163편

예언의 베일을 벗기다: 다니엘서 11장 탐구

Jeff Pippenger

2024-03-28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나, 바로 나는 메대 사람 다리오의 첫해에 그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여 주겠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부에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자들을 일으켜 헬라의 나라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강대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어난 뒤에 그의 나라는 부서져 하늘 사방으로 나뉘게 될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다스리던 권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 그 밖의 다른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1-4.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다리오의 첫해에도 다리오와 함께 일했음을 먼저 알리는데, 그 해는 다리오의 조카이자 장군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벨사살을 죽인 해이다. 10장 1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고레스 제3년에 받고 있으므로, 가브리엘은 다리오와 고레스를 모두 '끝날의 때'를 상징하는 표지로 지목하고 있다. 기원전 538년에 메대-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벨사살을 죽였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포위하였고, 주전 538년에 계략으로 그 성을 점령하였으며, 바사 사람들이 죽인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46.

기원전 538년에 다니엘은 9장을 기록하였다.

"앞선 장[제8장]에 기록된 이상은 벨사살 제삼년, 곧 기원전 538년에 주어졌다. 또한 다리오 원년이기도 한 같은 해에, 이 장[제9장]에 서술된 사건들이 일어났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05.

다리우스의 첫해, 곧 벨사살의 셋째 해이자 마지막 해였던 기원전 538년에, 주께서 갈대아인의 땅을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다.

이 온 땅은 황폐와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칠십 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11, 12.

10절에서 주께서는 바빌론에 대한 형벌로 나아가시며 "후에"라는 말을 사용하신다. 바빌론이 황폐하게 된 "후에",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5:10.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은 기원전 606년에 시작되었다.

“기원전 606년에 시작된 그 칠십 년이 이제 그 종말에 이르고 있음을 다니엘은 깨달았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05.

칠십 년간의 포로 생활은 기원전 606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536년에 끝났는데, 이는 기원전 538년에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의 황폐 이후 이 년째 되는 해였다. 그때는 고레스 제삼년이었다. 가브리엘은 히데겔 강의 예언을 고레스 제삼년에 둔 다음, 제11장의 서술을 다리오 제일년을 언급함으로 시작함으로써, 두 개의 특정한 해를 지목하고 있다. 기원전 538년과 기원전 536년은 둘 다 정한 때였으니, 기원전 538년은 칠십 년의 예언이 끝나도록 정하여진 때였고, 기원전 536년은 기원전 538년 “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의 선한 일을 행하실 정하여진 예언적 때였다.

기원전 538년과 기원전 536년은 둘 다 ‘정한 때’이며, 두 역사적 인물로 상징된다. 한 사람은 메대의 초대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문자적 바벨론에 포로 된 지 70년이 끝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벨론에 포로 된 1,260년(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을 상징했다. 1798년은 ‘정한 때’였고, 그 후 예언적으로 ‘끝의 때’로 식별되는 기간이 시작되었다. 또한 ‘정한 때’로 제시되는 기원전 538년과 기원전 536년 역시 ‘끝의 때’로 표현되는 기간의 시작을 표시한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랜 무자비한 박해의 기간 동안, 포로 기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상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참으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Prophets and Kings, 714.

모든 예언은 처음 성취되었던 시대보다 마지막 날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기원전 538년과 다리오 왕, 더불어 기원전 536년과 고레스 왕은 1989년의 “끝의 때”를 나타내며, 이 두 왕은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1세 대통령을 예표한다. 기원전 538년과 기원전 536년은 하나의 이정표를 나타내며, 두 날짜 모두 그 하나의 이정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때 성취된다. “끝의 때”의 이정표는 두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로는 레이건과 부시 1세의 경우처럼 두 상징이 같은 해에 모두 성취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이는 모세 시대의 “끝의 때”의 이정표가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의 출생이었고, 그 사이가 삼 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는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 이정표였으며, 그 사이가 육 개월 떨어져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끝의 때’는 1798년과 1799년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예언의 주제이며, 1789년에 시작되어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1799년에 그 정한 때에 끝났는데, 1798년이 정한 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둘은 함께 짐승에게 가해진 치명적 상처와, 또한 그 짐승 위에 올라타 다스리던 여자를 지목한다. 다리우스는 ‘벽’을 통해 군대를 들여보내 적을 물리친 왕이었고, 그는 ‘철의 장막’의 벽을 무너뜨려 적을 이긴 레이건을 상징한다. 키루스는 첫째 부시를 상징하는데, 키루스가 ‘키루스 대왕’으로 알려져 있듯이 조지 부시 1세는 ‘더 큰 부시’이고, 마지막 부시는 ‘더 작은 부시’다.

왜냐하면 이 두 왕과 그들이 나타내는 두 날짜는 사실상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바벨론이 통치할 70년을 가리킨다. 그 70년의 기간은 기원전 538년에 정해진

때에 이르렀고, 다리오가 그것을 상징한다. 포로 생활 70년의 완료는 기원전 536년에 정해진 때에 이르렀으며, 고레스가 그것을 상징한다. 이 둘은 함께 예언의 빛이 봉인이 풀릴 '끝 때'를 나타낸다. 1798년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끝 때'에 이르렀고, 화이트 자매는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없는 분'이었다고 말한다.

고레스 제삼년에, 하나님의 백성의 군주이며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대천사 미가엘이 고레스와 교섭하기 위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소와 거리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할 세 가지 칙령 중 첫째를 고레스가 반포하도록 이끌고 그 빛을 확증하였다. 그 일은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를 예표하였다.

다리오와 고레스의 시대, '종말의 때'에 미가엘이 강림한 것은 1798년에 첫째 천사의 도래를 표상하였고, 이 둘은 함께 1989년 '종말의 때'에 동일한 천사의 도래를 가리킨다. 1989년은 '종말의 때'의 기간을 시작했으며, 또한 '정한 때'이기도 했다. '정한 때'는 예언적 기간의 종료를 표시한다. 현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첫 '가데스'에서 있었던 1863년의 반역은, 1989년 '정한 때'에 종결되는 126년 기간의 시작이었다. 126은 1260의 십일조, 곧 십분의 일이며, 1798년에 1260년이 끝날 때 첫째 천사의 운동이 역사 속에 도래했다. 1989년에 126년이 끝날 때, 셋째 천사의 운동이 역사 속에 도래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가브리엘은 제시된 역사가 1989년의 종말의 때에 사이러스에서 시작된다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밝힌다. 그곳에서 사이러스 대왕은 더 큰 부시를 대표하며, 그 뒤를 세 명의 왕이 따르고, 이어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한 네 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온 그레시아를 격동시키는 그 네 번째 부유한 왕은 1989년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

10장의 사건들에서 다니엘은 애통하는 자로 묘사되며, 그는 환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애통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애통의 21일 기간은 부활로 끝나는 죽음의 기간을 상징한다. 10장에서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유다서 7절에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 모세를 부활시킨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임을 당해 상징적인 삼일 반 동안 길거리에 죽은 채로 있다. 그런 다음 모세(엘리야와 함께)는 "큰 음성"에 의해 부활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보았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부활하게 하는 "큰 음성"은 대천사의 음성이며, 그 대천사는 미가엘이다.

주께서 친히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6

모세와 엘리야가 살해되었다가 부활하는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첫째 음성"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뉴욕 시의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르는 것이라고 밝힌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에 발하여지며, 그때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가 바벨론에서 불러냄을 받는다. 바로 그 역사, 곧 인침의 역사에서, 다니엘은 "마라" 이상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마레" 이상의 여성형 표현이다. 그것은 "사역적" 이상, 곧 바라보는 형상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 재생되도록 "하게 하는" 이상이다.

인침의 역사와 다니엘 10장에서의 다니엘의 변화의 역사는, 미가엘이 강림하여 모세, 엘리야, 다니엘로 대표되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포함한다. 그는 대천사의 '큰 음성'으로 그 부활을 이루며, 이로써 첫 번째와 마지막 음성 사이, 한가운데에 세 번째 '음성'을 제공한다. 첫 번째와 마지막 음성은 둘 다 동일한데, 둘 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가운데의 음성에서는 반역이 대표되는데,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켰을 때 반역의 장본인 사탄이 거기서 항의하고 있었음에도, 미가엘은 사탄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대천사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논쟁할 때, 감히 그에 대하여 모욕적인 비난을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하고 말했다. 유다서 7절.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닥쳐올 일요일 법으로 끝나는 인침의 시기의 시작에는 "진리"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이는 그 기간의 한가운데인 2023년 7월에 대천사의 큰 음성이, 그분의 중간 음성을 듣기를 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이 2001년으로부터 스물두 해 후에 온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리고 스물둘은 이백이십의 십분의 일인데, 이백이십은 신성과 인성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며, 또한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2023년 7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곧 진리이시고 또한 미가엘이시며, 손에 메시지를 들고 내려오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위대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분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은 마지막 날들까지 봉인되어 있었던 다니엘서의 그 부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5.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말세와 관련된 부분은 11장이다. 곧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며, 더 정확히는 그 마지막 여섯 절에서 이 장에 담긴 역사적 서술들이 반복된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영으로 소란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들 가운데 말해진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number 13, 394.

다니엘서 11장 16절은 41절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 주는데, 그 절에서 북방 왕이 영화로운 땅에 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6절의 역사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로로 삼았던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그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며,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니, 그의 손으로 그 땅을 멸하리라. 다니엘 11:16.

나는 이 구절을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고찰하는 데 있어 닳으로 삼고자 하므로, 먼저 이러한 이해를 확립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가 1989년에 시작되며, 이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세력에 대한 푸틴의 승리, 그리고 16절로 이어지게 되는 푸틴의 그 후의 패배를 지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비록 애굽이 북방 왕 안티오쿠스 앞에 설 수 없었으나, 안티오쿠스 역시 이제 그를 치러 온 로마인들 앞에 설 수 없었다. 더 이상 어떤 나라들도 이 떠오르는 세력에 대항할 수 없었다. 시리아는 주전 65년 폼페이우스가 안티오쿠스 아시아티쿠스의 영토를 빼앗고 시리아를 로마의 한 속주로 만들었을 때 정복되어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다.

“그 동일한 세력은 또한 거룩한 땅에 서서 그것을 삼키게 되어 있었다. 로마는 기원전 161년에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날짜로부터 예언의 연대기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대에 대한 지배권을 실제적인 정복으로 획득한 것은 기원전 63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폼페이우스가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에 대한 원정에서 돌아오자, 두 경쟁자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불루스가 유대의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들의 분쟁은 폼페이우스 앞에 제기되었고, 그는 곧 아리스토불루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간파했지만, 오랫동안 염원해 온 아라비아 원정을 마칠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자 했으며, 그 뒤 돌아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들의 사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이우스의 진의를 간파한 아리스토불루스는 서둘러 유대로 돌아가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으며, 자신의 왕위가 다른 이에게 귀속될 것을 예견하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왕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폼페이우스는 그 도주자를 바짝 추격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행보를 후회하기 시작한 아리스토불루스가 그를 맞으러 나와 전면적인 복종과 거액의 금전을 약속함으로써 일을 수습하려 했다. 폼페이우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비니우스를 병력 일부의 지휘관으로 보내 돈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 부장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 위에서 도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으려던 폼페이우스는 곁에 두고 있던 아리스토불루스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곧바로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다. 아리스토불루스의 지지자들은 그곳을 방어하자고 했고, 히르카누스의 지지자들은 성문을 열자고 했다. 후자가 다수였고 우세하여, 폼페이우스는 아무 방해 없이 도시로 들어갔다. 이에 아리스토불루스의 추종자들은 성전 산으로 물러났고, 폼페이우스가 그곳을 함락시키려 결심한 만큼이나 단호하게 그곳을 지키기로 작정했다. 석 달이 지나자 돌격이 가능할 만큼 성벽에 돌파구가 뚫렸고, 그곳은 칼끝으로 함락되었다. 이어진 참혹한 학살에서 1만 2천 명이 살해되었다.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마침 신성한 예식을 집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사방에서 벼들이 도륙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피가 제물의 피와 뒤섞이는데도, 주위의 광란 같은 소요를 의식하지 않은 듯, 침착한

손놀림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평소의 직무를 계속하는 광경은 실로 가슴 아픈 것이었다.

전쟁을 끝낸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여러 도시를 유대의 관할에서 시리아의 관할로 이관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처음으로 정복을 통해, "영화로운 땅"을 완전히 삼켜 버릴 때까지 철권으로 움켜쥐고 있을 그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59, 260.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논쟁이나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을 연구해도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고,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성경을 찾아보게 만들 만한 의견 차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현재의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심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시대를 위한 사역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오면, 지금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입장을 검토해 보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큰 무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해한다고 당연시하는 이들이 많으나,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서 떨어져 홀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해야 하게 될 때, 자신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일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다른 수단들이 실패할 경우,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체질하여, 알곡에서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이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위험을 보여 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입장들을 가장 면밀히 검토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모든 측면과 입장들이 기도와 금식 가운데 철저히하고도 끈기 있게 탐구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는가에 관하여 추정과 불분명한 생각들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이는 시련의 때가 이르고 그들이 자기 믿음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공회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선동하라, 선동하라, 선동하라.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조항들로 여기는 교리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결코 전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논증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논증은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진리를 영화롭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킬 뿐 아니라 가장 면밀하고도 철저한 검토를 견뎌 낼 수 있는 건전한 논증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가로 스스로를 훈련시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 큰 위험이 있다. 반대자를 대할 때에는 단지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그의 마음에 확신을 일으키도록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지적 발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철저히 하고 끊임없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자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빛의 한 줄기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첫 빛줄기를 붙잡아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더 밝은 빛을 얻어 다른 이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일하고 현재의 깨달음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의 뜻은, 그들을 위해 비치고 있는 더해지고 또 계속 더해지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교회의 현재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만심이 스며들어, 그들은 더 많은 진리와 더 큰 빛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좌우에서, 전후에서 역사하는 때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잠자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일으켜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신다." 증언, 제5권, 707, 708쪽.